강다니엘 첫 단독 콘서트, 월드투어 앞둔 '퍼레이드'

13·14일 양일간 8000명 운집…메시지는 '담백함'
"삶 원동력은 가족·반려묘에 대한 책임감"

"제 반려묘 '루니'가 아팠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2,3주 있다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당시 속이 상했는데) 그런 제 책임감이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에요."

신드롬을 일으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우승자, 짧지만 굵직한 역사를 남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센터, 2NE1 출신 씨엘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자친구 출신 유주·첸슬러가 소속된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CEO….

화려한 이력으로 포장된 강다니엘은 더 순수하고 더 담백하다. '다니티'(팬덤명)는 그에게서 솔직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속수무책이 된다. 강다니엘의 매력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 첫 단독 솔로 콘서트 '2022 강다니엘 콘서트 퍼스트 퍼레이드 인 서울 -(KANGDANIEL CONCERT FIRST PARADE IN SEOUL)'는 그런 순수함·담백함과 그로 인한 속수무책의 연장선상이었다.

전날과 이날 총 8000명의 팬들은 그렇게 어찌할 도리 없이 강다니엘 노래와 춤 그리고 열정에 당했다.

2019년 7월 솔로 선언 이후 3년 만에 열린 콘서트 전에 만난 강다니엘은 "담백하게 저라는 가수가 낸 앨범과 퍼포먼스를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날 첫곡 '플래시(Flash)'는 2020년 발매한 미니앨범 '마젠타(MAGENTA)' 수록곡. 이 앨범 중 유일하게 관련 콘텐츠가 없어 팬들이 아쉬워했던 곡이었다. 강다니엘은 이번 콘서트에서 이 곡의 첫 무대를 선보인 것을 두고 "큰 그림을 그리고, 쟁여놓고 있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후 들려준 '퍼레이드(Parade)'는 이번 콘서트 주제곡으로 경쾌함이 가득했다. 이 곡의 흥을 돋우는 화려한 영상은 공연장을 신나는 퍼레이드 장으로 만들었다. 강다니엘은 그렇게 공연 끝까지 다니티와 축배를 들고 힘겨운 삶을 뚫어냈다. 이제 이 퍼레이드는 월드투어로 이어진다.

다음은 콘서트 전 기자간담회에서 나눈 일문일답.

-첫 콘서트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날 첫 공연을 잘 마친 기분은요?

"사실 제가 앨범을 낸 개수나 활동한 기간에 비해 공연을 못 했어요. 드디어 뭔가 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라 감격스럽죠. 1일 차 끝나고 '세트리스트'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콘서트를 해야 해 콘서트 직전까지는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끝나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더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콘서트 타이틀에 '서울'이 붙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계획 중이신 거죠?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찾아주시는 곳도 많다 보니까요. 시작은 아시아에서 할 겁니다. 다른 나라 도시에서 할 때는 세트리스트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일본 음악 축제 '서머 소닉'(21일 도쿄 공연도 앞두고 있고 하반기엔 현지 진출도 본격화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서머소닉' 출연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요. 큰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안 믿깁니다. 일본에선 좀 장르를 다르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록적인 요소, 즉 J-록이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거든요. 또 일본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키한 음악이 많고 아티스트 개개인의 색깔도 확고해서 그런 부분의 제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룹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나선 이후엔 활동이 쉽지 않은데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해나가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앞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후회없이 좋은 음악을 내고 싶어요. (정규 1집) '더 스토리'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 드린 내용이에요. 가수가 좋은 곡을 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모순적인데 그럼에도 좋은 곡을 많이 내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솔로로 나선 이후엔 갈이 무대를 채워나가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댄서분들, 헤어 스태프, 메이크업 스태프, 매니저분들. 그리고 회사의 모든 분들과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3일 첫 방송하는 새 댄스 프로그램으로 역시 강다니엘이 MC를 맡는) '스맨파'(스트릿 맨 파이터)로 댄서계가 비상이거든요. 댄서 분들이 출연을 하시니까요. 다른 선배님들 콘서트에서도 (댄서가 부족한 상황인 게) 마찬가지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신 댄서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콘서트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해외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해외 팬분들은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해외 팬분들의 고향에서도 콘서트를 열 수 있으니 아쉬움 없이 설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콘서트 이후 '내 음악이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나요?

"음악적으로는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 같아요. 꾸밈이 없는 담백한 음악 메시지가 제가 가진 작사가로서 정체성이에요. 제가 먼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음으로써 다가가는 것이 제 음악적인 선택이죠. 작사할 때 느끼는 건 신기함이에요. 저만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그걸 표출을 했을 때 공감을 해주시거나 이해해주실 때 신기하죠. 먼저 털어놓는 솔직함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할까요. 이 기분을 조금 더 느껴보고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디즈니+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수업'에서 주연을 맡았고 작년 신드롬을 일으킨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와 스핀오프인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의 MC를 맡았고, 회사도 운영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병행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가 있나요?

"특히 '너와 나의 경찰수업'을 촬영하면서 다른 배우분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또 '너와 나의 경찰수업'을 통해 배우의 삶에 한발짝 발을 디디면서 느낀 건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넓어져 그런 부분을 무대에서도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찍으면서 액션 쪽으로 좋은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몸을 쓰고 액션 신(scene)을 맞추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에 재미를 느꼈어요. 좋은 액션물이 있고 연락을 주신다면 함께 하고 싶어요."

-지난 6월엔 '업사이드 다운(Upside Down)'으로 비보잉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도 하셨는데요.

"허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았어요. 장마철에 굳이 날씨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지 않아도 (비가 온다는 걸 느낄 정도로) 증상이 있죠. 하지만 스물일곱 살에 비보잉 비디오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진통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에너지 분배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티나게 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반기에도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외동이에요. 집안의 사정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팬들과 호흡을 맞춤 있는 시간이 생겨서 힘이 나죠. 이번 콘서트가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진스, 3개월 만에 르세라핌 초동 기록 깼다…31만장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HYBE)의 레이블이자, 민희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어도어(ADOR)의 첫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예상대로 역대 신인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 기록을 썼다.

15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뉴진스의 첫 번째 미니앨범 '뉴 진스(New Jeans)'는 발매 일주일(집계기간 8월 8~14일) 동안 총 31만1271장이 판매됐다.

이는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의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신기록이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이 론칭한 걸그룹이자 뉴진스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르세라핌(LE SSERAFIM)'이 지난 5월2일 발매한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로 세운 데뷔 걸그룹 초동 기록 30만7450장(한터차트 기준)을 3개월여 만에 깼다.

그런데 그 차이가 4000장이 채 안 돼 두 팀 다 초반 화제몰이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온다. 르세라핌은 데뷔 걸그룹 음반 판매량 30만장을 넘긴 첫 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같은 레이블에서 비슷한 시기에 걸그룹을 론칭한 것도 드문 일인데, 두 팀 모두 성과를 내는 건 더욱 이례적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한터차트 기준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의 발매 첫날 판매량 신기록과 초동 신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팀이 됐다. 또한, '뉴진스'는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동 11위로 직행했다. 이번 뉴진스 앨범은 선주문만 44만장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역대 걸그룹 음반 관련 신기록을 모두 깨고 있다.

'뉴진스'는 한터차트 최신 주간 음반 차트(집계기간 8월 8~14일) 1위를 차지했고, 써클차트 최신 주간 소매점 음반 차트(집계기간 8월 7~13일) 정상에 오르며 막강한 음반 파워를 과시했다.

뉴진스의 인기는 음원 차트에서도 확인된다. 뉴진스의 첫 번째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과 두 번째 타이틀곡 '하이프 보이(Hype Boy)'가 한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에서 13일 연속 1, 2위를 지켰다. 세 번째 타이틀곡 '쿠키(Cookie)'는 7일 연속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어텐션'은 13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 톱 송' 차트 179위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차트인했다.

'어텐션'은 사흘째 멜론과 지니 일간 차트 1위에 올랐고, 벅스 일간 차트에서는 7일 연속 1위에 머물렀다. 이 곡은 바이브 '오늘 톱 100' 차트에서 5일 연속 정상에 자리하는 등 국내 주요 일간 차트를 휩쓸었다.

'한산: 용의 출현', 600만 돌파…"손익분기점 넘겼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한산: 용의 출현'은 개봉 20일째인 이날 오전 기준 600만 관객을 넘겼다. 이는 천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동일한 속도의 흥행 기록이다. 이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특히 제작사 측은 "광복절에 승전보를 울렸다"고 의미를 더했다.

'한산: 용의 출현'은 명량해전 5년 전, 진군 중인 왜군을 상대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전략과 패기로 뭉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전쟁 액션 대작이다. 박해일·변요한·손현주·김성규·박지환 등이 출연했고, '명량'(2014)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 18일 개봉

투란도트 배다해·왕자 칼라프 민우혁·시녀 류 양서윤

뮤지컬 '투란도트'가 무대를 벗어나 오는 18일 전국 영화관을 통해 팬들을 만난다.

15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 따르면 투란도트는 대구시와 DIMF가 제작해 중국 5개 도시 초청공연, 한국 대형 창작뮤지컬 최초로 동유럽 6개국 라이선스 수출 등의 성과로 한국창작뮤지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작품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세계적인 오페라 투란도트를 모티브로 중독성 높은 뮤지컬 넘버와 화려한 연출을 더해 새롭게 창작 뮤지컬로 탄생한 투란도트는 2011년 초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20년 3월 슬로바키아 노바스체나 국립극장에서 동유럽 라이선스 버전이 초연됐으며 지난 6월에는 제16회 DIMF 개막작으로 초청되는 등 글로벌 콘텐츠로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원작 뮤지컬 투란도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은 호주 영화 포켓 미 낫, 파스트 디 아워와 한국 영화 경계인, 장농 등을 연출한 김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뮤지컬의 원작 스토리와 넘버를 녹여 내기 위해 원작곡자 장소영 음악감독이 합류했다.

또한 각색을 통해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원작 뮤지컬에서 느낄 수 없었던 화려한 효과와 중독성 있고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넘버로 완성도를 높인 뮤지컬 영화이다.

뮤지컬로 접해왔던 재미와 감동은 물론 대구지역 수목원 및 제주 돌문화 공원 배경으로 야외 촬영의 영상미를 더해 영화 특유의 현장감과 신비로움으로 뮤지컬팬 뿐만 아니라 영화팬까지 즐길 수 있다.

극장 개봉을 앞두고 지난 7월 개최된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공식 초청돼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하는 GV 상영회 진행 및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상영을 하는 등 관객들을 미리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영화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은 공주 투란도트가 망국의 왕자 칼라프의 진정한 사랑으로 어둠의 저주를 푸는 판타지 로맨스 뮤지컬 드라마다.

어머니가 당한 상처로 인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 역에는 뮤지컬 셜록홈즈와 모차르트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배다해가, 진실한 사랑으로 투란도트의 차가운 저주를 풀어낼 칼라프 역에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모래시계, 지킬 앤 하이드, 등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준 민우혁이, 칼라프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보여주는 시녀 류 역에는 뮤지컬 또! 오해영, 베어 더 뮤지컬 등에서 활약한 양서윤이 호흡을 맞췄다.

뮤지컬배우이자 브라운관에서 연기파 배우로 활약중인 이정열, 성기윤, 임춘길, 박정표, 김대한 등도 출연한다.